

뉴욕 하이드 파크를 찾아서

이 경 구*

날씨가 따뜻한 어느 여름날, 우리 내외는 손녀 손자와 함께 아들 차를 타고 뉴욕 주 하이드 파크(Hyde Park)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록관(Franklin D. Roosevelt Library and Museum)을 찾았다. 비지터 센터 직원에게 입장료를 내고 카드 3장을 받았다.

사무실 남쪽 문을 나오니 잔디 정원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부부의 동상이 있고 저만치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록관과 묘지(Gravesite)와 생가(Home of Franklin D. Roosevelt)가 보인다. 큼직하고 고풍스런 건물들과 생가 주위는 푸른 잔디와 나무로 둘러싸였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일본어로 쓰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자서전」을 읽은 기억을 더듬으며 아내와 아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잔디밭 샛길을 걸어서 기록관으로 향하였다. 기다란 단층 건물 모퉁이마다 미국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현관에서 카드를 보이고 넓은 방으로 들어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어 생산한 문서와 사진들 그리고 아내이자 훌륭한 정치적 파트너였던 엘리노어 루

스벨트(Eleanor Roosevelt) 여사에 관한 자료들에 압도되었다.

우리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창안하고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서명하는 언론 보도며, 1941년 12월 8일 일본에 대해 개전 선언을 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는 문서며, 미국이 주도한 1943년의 카이로 회담에 관한 자료며, 1943년 시실리(Sicily)를 시찰했을 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과 찍은 사진이며,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가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아 세계 인권 선언의 채택을 주도한 문건들을 자세히 보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필로 고친 개전 요청서는 세계 역사에 획을 그은 문서이자 명문이다.

기념관을 뒤로 하고 잔디밭 샛길로 해서 규모가 큰 생가를 찾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882년 이 집에서 태어났으며 허드슨 계곡(Hudson Valley) 대농장의 귀족적인 환경 속에서 가정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프랭클린은 14살 되던 해 기숙학교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났는데, 뒷날 “유년을 되돌아 보면 허드슨 계곡과

* 전 주센다이총영사, 현재 미시애틀 거주

사람들의 평화로움과 일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조부모와 부모의 초상화, 어렸을 때 부모와 찍은 사진, 프랭클린의 침실, 타고 놀던 목마, 세레 증명서, 책이 가득한 서재, 아담하게 꾸민 식당과 그릇들, 로스쿨 시절에 받은 성적표, 멋진 결혼식과 신혼 여행, 모친에게 보낸 편지들, 자녀들과 찍은 부부 사진, 29세 때의 동상, 엘리노어가 쓰던 뜨개질 세트, 위스턴 처칠 수상과 조지 6세 국왕이 묵었던 방들을 구경하였다. 프랭클린이 태어난 2층 침실의 침대를 한참 바라보았다.

생가를 나와 사무실로 가는 길에 장미정원(Rose Garden) 입구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정원 가운데에 백색 대리석으로 만든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엘리노어 루스벨트를 합장한 묘가 있고 주위에는 장미꽃이 만발하였다. 장방형의 석곽 측면에 부부의 성함과 생존 기간이 음각되었다. 세상에 남긴 부부의 발자취에 비하여 평범하기 이를 데가 없는 묘이다. 묘지를 향해 작별의 묵념을 올렸다.

비지터센터 기념품 코너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엘리노어 루스벨트에 관한 서적들과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손녀에게 수첩따 바단 퀘일런(Sudipta Bardhan-Quallen) 작가가 쓴 「Franklin Delano Roosevelt: A National Hero」

라는 책을, 그리고 손자에게는 모형 비행기를 사 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는 취미가 독서이다.

비지터센터를 나오자 아들은 우리들을 차에 태우고 숲 너머로 허드슨 강이 보이는 미국요리학원(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으로 안내하였다. 붉은 벽돌로 지은 단아한 건물이다. 미국 최고의 요리 학원이며 현재 3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라고 한다. 학생 실습용 식당에서 볶음밥과 새우튀김과 스테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우리 테이블을 맡은 한국인 학생은 학원 교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었다.

석양 무렵에 우리들은 비지터센터로 돌아왔다. 미니 버스를 타고 숲길을 지나며 엘리노어 루스벨트 생가로 향하였다. 인권 운동가로서 세계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명성에 비해 서재와 식당이 검소해 보인다. 거실에 있는 하얀 상아가 눈길을 끌었다. 니키타 후루시초프, 마샬 티토, 하일레 셀라시에, 자와할랄 네루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묘를 참배한 뒤에 이곳으로 미망인을 방문했다고 한다.

정원으로 나오니 숲속의 저녁 풍경이 마음에 따스다. 우리들 관광객들을 태운 미니 버스는 비지터센터를 향해 숲길을 달렸다. **외교**